

독서 유행 담론에서 나타난 독서 행위의 특성과 교육적 함의 — LDA 토픽 모델링을 중심으로

황재호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 과정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V. 결론

I. 서론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과 생성형 AI의 등장은 사람들이 독서를 대하는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 독서는 지식 습득의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으나, 오늘날 독자는 요약 콘텐츠와 AI의 답변을 통해 책을 펼치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독서는 점차 선택의 문제가 되어 가고 있으며, ‘여전히 독서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사회 저변에서 대두되고 있다(Engemann, 2025/2026). 그는 오늘날의 독자는 읽을 수 있지만, 읽는 행위를 다른 누군가에게 위임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진단한다. 문해율이 전례 없이 높고 거의 모든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사람들은 스스로 읽는 대신 생성형 AI와 영상 콘텐츠가 대신 읽어 주도록 맡긴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독서의 위기가 글을 읽을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독해력과 읽고자 하는 의지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됨을 암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국민독서실태조사』는 이를 방증한다. 2025년 성인의 독서율은 38.5%로, 조사 시행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성인이 꿈은 독서의 주된 장애 요인 가운데 ‘책 이외의 기기나 매체를 이용해

서'라는 응답이 24.3%에 이르렀다는 점은,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이 독서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 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독서율 하락 추세 속에서도 최근 몇 년간 역설적으로 독서가 하나의 유행으로 부상하는 사뭇 다른 흐름이 나타나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텍스트힙, 힙독, 독과민과 같은 신조어들이 연이어 등장하였고, 이러한 표현들을 매개로 독서를 개성 있고 매력적인 문화 행위로 향유하는 경향이 확산되었다. 한 일간지는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로 텍스트힙 현상이 확산되면서 출판 시장에 젊은 독자들이 유입되고, 필사·병렬 독서 등 독서 양식의 변화를 주도하며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장수정, 2025. 12. 26.). 실제로 『2025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도 전반적인 성인 독서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20대의 독서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I와 디지털 미디어가 독서를 잠식해 가는 흐름 속에서 오히려 디지털 세대가 책을 자발적으로 찾아 나서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변화되는 애독자의 양상, 즉 현재 독자들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조건에서 독서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지속하는지를 보여 주는 점에서, 독서교육의 방향성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독서 유행 현상의 담론적 구조를 규명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기사문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기반 분석이다. 기사문은 대중의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담론 공간으로, LDA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면 텍스트에 잠재된 담론 구조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기사문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해력 관련 담론 분석(박고운·최숙기, 2025; 박윤경, 2025) 등에서 이미 그 유효성이 검증된 바 있다. 그러나 독서 유행 현상에 대한 분석은 주로 이론적·비평적 논의나 소규모 질적 연구를 통해 다루어졌을 뿐, 해당 현상이 터하고 있는 담론 구조 자체를 대규모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기사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필요성은 여기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빅카인즈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LDA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여 독서 유형 담론에 나타난 독서 행위의 특성을 규명하고, 그 결과가 독서교육에 주는 함의를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독서 유형 담론의 잠재 토픽은 무엇이며, 각 토픽은 독서 행위의 어떠한 특성을 보여 주는가? 둘째, 포착된 독서 행위의 특성은 독서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애독자의 특성과 독서 동기

독서 유형 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저에 있는 애독자의 특성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이론적 전제로서 애독자의 개념과 애독자의 독서를 추동하는 독서 동기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애독자는 ‘책을 꾸준히 즐겨 읽는 사람’을 지칭한다. 해당 개념은 대척점에 있는 비독자 개념에 대한 검토를 통해 더욱 명확해질 수 있다. Mikulecky(1978: 3)는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독자가 비독서의 상태를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 정기적으로 지속하는 현상을 비독서(aliteracy)로 명명하였다.¹⁾ 이는 읽기 능력이 부재한 문맹(illiteracy)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읽을 수 있음에도 읽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순영(2019: 366-368)은 이를 시간 부족 등의 외적 요인에 의한 비자발적 비독자와 부정적 독서 태도 등의 내적 요인에 의한 자발적 비독자로 분류하며 개념역을 명확히 하였다.

1) Aliteracy의 번역에 대한 학술적 합의는 아직 정립되지 못하였다. 본고는 이순영(2019)과 박신애(2022)의 논의를 수용하여, Aliteracy는 비독서로, Aliterate Reader는 비독자로 번역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김해인(2020: 46-48)은 비독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책을 1년에 1회 이하로 읽는 사람으로 더욱 정교화하였다.

비독자 개념은 애독자의 핵심 특성이 단순한 읽기 능력이 아닌 독서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지속하는 점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순영(2019: 361-362)은 독서 빈도에 초점을 두고, 애독자를 책이나 잡지, 신문 따위의 글을 꾸준히 즐겨 읽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김해인(2024: 334)은 독서 빈도와 함께 독서 태도에 대한 고려를 명확히 하여, 자발적으로 자주 독서를 하며 독서 태도가 긍정적인 독자를 애독자로 규정한다. 애독자의 또 다른 주목할 특징은 애독자와 비독자의 전환이 가변적이라는 것이다. 이순영(2019: 377-378)은 비독자 대다수가 10~20대를 거치며 비독자가 된 '전환형 비독자'임을 밝히며, 비독자의 형성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독자의 주요 생성기인 청소년기와 사회 초년기의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김해인·이수진·이순영(2023: 136-143)은 애독자로의 전환에 주목하여, 성인 전환형 애독자 전환의 주요 계기가 독서를 권하는 인적 환경, 접근성 있는 물리적 독서 환경, 시간적·경제적·심리적 여유, 삶과 직업에서의 필요, 독서의 가치와 흥미 인식임을 규명하였다.

이와 같은 애독자의 독서를 추동하는 동기는 단일하지 않다는 특성을 지닌다. Schwanenflugel & Knapp(2015/2021: 409-425)은 기대-가치 이론에 기대어 독서 동기를 성공에 대한 기대와 독서에 부여하는 가치의 두 축으로 나눈 뒤, 후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내재적 흥미, 유용 가치, 자기 개념, 관계적 가치, 비용과 위험을 제시하였다. 이순영(2006)은 독서 동기와 몰입의 영향 요인을 텍스트, 독자 내적, 교사와 교실환경, 가족과 가정환경의 네 범주로 정리하였다. 두 논의는 독서 동기가 독자 개인의 내면에 자리한 요인들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조건에도 걸쳐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용준(2020: 132)은 탈맥락적으로 개인의 내적 심리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독자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최건아·김라연·박소희(2023)는 중학생 독자의 읽기 동기

를 분석하며, 친구, 교사, 지역 도서관 등의 사회적 차원과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는 문화적 차원까지 읽기 동기에 영향을 미침을 밝힌 바 있다.

요컨대, 애독자는 독서 빈도와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념이며, 애독자와 비독자의 전환은 유동적이다. 독서 동기는 개인의 내적 요인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가정과 학교, 또래와 공간을 비롯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밀접하게 결부된다. 애독자로 전환되는 계기 역시 이와 연관된다. 이에 본고는 현시대 독서 행위의 사회·문화적 조건이 집약된 독서 유행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그 기저에서 독서 동기를 형성하는 조건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서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2. 독서 유행 현상과 담론적 특성

최근 텍스트힙·북독·힙독 등의 표현을 매개로 한 독서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텍스트힙을 매개로 SNS와 독서 앱 이용이 10·20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필사·감상 공유 등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행위들이 나타난 바 있다(나건웅·조동현·정혜승 외, 2025. 2. 11.). 본 연구는 이들이 가리키는 일련의 현상을 ‘독서 유행’으로 개념화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개별 표현들은 산발적으로 등장하고 빠르게 변화하지만, 그 기저에는 독서 관련 제반 행위들이 문화 실천 속에서 공유되며 사회·문화적 가시성을 획득한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언급하는 특정 행동 양식이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의 추종을 받으며 널리 퍼지는 사회적 동조 현상을 가리키는 ‘유행’의 성격과도 부합한다.

독서 유행 현상을 대표하는 표현 중 하나가 텍스트힙이다. 텍스트힙은 글자를 뜻하는 텍스트(text)와 멋있다는 의미의 힙(hip)을 결합한 신조어로, 독서와 글쓰기와 같은 텍스트 기반 문화 활동을 개성 있고 매력적인 것으로 여기며 향유하는 문화적 경향을 가리킨다. 이인화(2025: 305-306)는 이를 디지털 환경 속에서 새롭게 확산되는 문학 향유 방식으로 규정하면서, SNS

에 익숙한 세대가 문학 작품을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과정이 독서를 감각적이고 표현적인 사회적 행위로 재구성한다고 보았다. 주민재(2025: 144-145)는 텍스트랩을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의 콘텐츠 소비 양상으로 분석하면서, SNS에서 독서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며, 이때 어떤 책을 어떻게 읽는가가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들 논의는 독서 유행 현상이 독서 행위를 기존의 독서와 구별되는 방식으로 재구성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독서 유행 현상은 국제적 흐름과도 궤를 같이한다. 2010년대 후반 이후 TikTok에서 독서 콘텐츠를 공유하는 현상을 일컫는 북톡(BookTok), Instagram의 독서 문화 해시태그인 북스타그램(Bookstagram) 등의 온라인 독서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Martens, Balling, & Higgason(2022: 715)은 북톡이 청소년 독자에게 또래 간 상호작용에 기반한 자기주도적인 자유로운 독서 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를 향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Dezuanni & Schoonens(2024: 9)는 북톡을 열정과 관심을 공유하는 또래 사이에서 지식과 기능이 교환되는 학습의 장으로 보고, 북톡 창작자들이 독자로서의 정체성이나 책 선택에서의 비판적 판단, 독서 목표 설정, 독서의 즐거움, 미디어 콘텐츠 향유가 독서를 촉진하는 데 지니는 가치를 또래에게 가르친다고 하였다. Thomas(2021)는 북스타그램에서 독서가 신체와 환경에 걸쳐 수행되는 체화된 실천으로 현상된다고 보고, 개별 독서를 다른 독자의 독서와의 연결 속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적 활동으로 재개념화하였다. 이와 같은 해외 사례는 독서 유행 현상이 디지털 환경과 결합하여 독서를 사회적 실천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독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넓히는 계기로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독서 유행 현상은 특정 표현을 매개로 독서와 관련된 여러 실천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현상의 의미는 그 자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고 평가하는 사회적 언어를 통해 규정된다. 독서 유행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현상에 대

한 기술과 더불어 담론의 차원을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인화(2025: 303-314)가 텍스트hips을 ‘현상’과 그것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해석으로서의 ‘담론’이라는 두 층위에서 분석한 것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텍스트hips을 하위 사례로 포괄하는 독서 유행에도 이 두 층위의 접근이 유효하다. 이에 본고는 독서 유행 현상을 조망하는 한편, 그 현상이 언론 매체에서 의미화되는 양상을 ‘독서 유행 담론’으로 개념화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및 분석 대상

본 연구는 기사문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기사문은 특정 사회 현상을 선택하고 정리하여 의미화하는 대표적 담론 공간으로, 대규모 기사문 데이터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은 특정 주제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의 구조와 그 변화를 포착하는 데에 유용하다. 박윤경(2025)은 빅카인즈 기사문을 대상으로 LDA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여 문해력 담론의 주요 의제를 도출하였고, 박고운·최숙기(2025) 역시 동일 플랫폼의 데이터로 팬데믹 이후 문해력 담론의 변화를 분석한 바 있다.

자료 수집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빅카인즈(BIGKinds)를 통해 이루어졌다. 빅카인즈는 국내 주요 언론사의 기사문을 분석 자료와 함께 제공한다. 본 연구는 키워드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형태소 분석을 거쳐 추출된 명사 중심 자료로,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활용할 수 있으며, 박윤경(2025)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 이를 기본 분석 단위로 삼되, 수집된 기사문 원문을 함께 검토하여 보완하였다. 분석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연구 자료 수집 시점인 2026년 5월 21일까지로 설정하였다.²⁾

검색어는 독서 유행 현상을 지칭하는 표현들로 구성하였다. 우선 ‘텍스트힙’, ‘힙독’, ‘독파민’, ‘북독’, ‘북스타그램’이라는 표현들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언론 보도에서 해당 현상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다수 사용되어 왔고, 지시 대상도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이다. 또한 흔히 MZ 세대의 언어로 여겨지는 독서 유행 현상을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쓰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독서 유행 현상의 외연을 보다 온전히 포착하기 위해 검색되는 범위가 넓은 ‘MZ 독서’를 검색어로 추가하였다. 단,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를 다루는 만큼 무관한 기사문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후술할 전처리 단계에서 보다 엄밀하게 정제하였다.

위의 검색어에 따라 검색된 기사문은 2561건이었다. 수집된 기사문은 분석 자료로서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4단계 전처리를 거쳤다. 1단계는 어휘 사전 구축으로, 보도 관련 일반어와 단음절어 등 의미 변별력이 낮은 어휘를 불용어로 처리하였다. 특히 검색어인 ‘독서’처럼 전체 문서에 걸쳐 과도하게 반복 출현해 토픽의 변별적 의미를 약화시키는 어휘도 불용어 목록에 포함하였다. 2단계는 중복 기사문 제거로, 동일한 기사문과 동일 사건이나 보도자료를 다룬 유사 기사문을 정리하여 대표 기사문 한 건만 남겼다. 3단계는 단문 기사문 제거로, 본문이 200자 미만인 경우 소거하였다. 4단계는 주제 무관 기사문 제거로, 검색어가 단순 언급되는 데에 그치거나 독서와 무관한 주제(정치, 경제·금융, 스포츠, 부동산 등)가 주된 내용인 기사문을 제거하였으며, 검색 범위가 넓은 ‘MZ 독서’는 이와 관련해 더욱 엄격하게 검토하였다. 이상의 4단계 전처리를 거쳐 2561건 중 최종적으로 1221건이 분석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2) 2023년은 독서 유행 관련 신조어와 담론이 국내 언론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생성형 AI의 확산도 이 무렵부터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분석 시작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2.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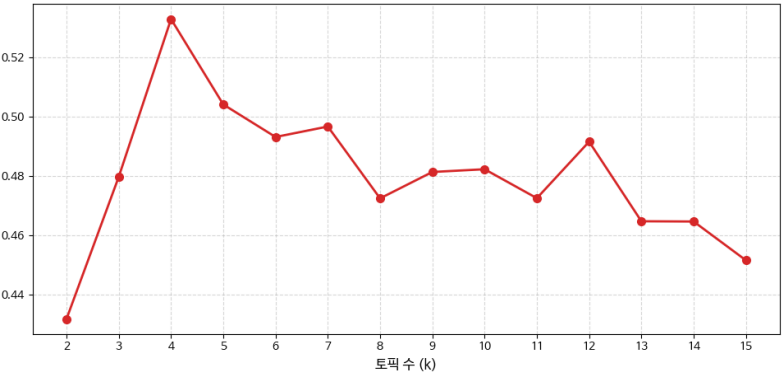
본 연구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 모델링을 주요 분석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토픽 모델링은 문서 집합인 말뭉치에서 주제(토픽)를 통계적으로 식별하여 분류하는 작업으로, 여러 문서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주제를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조규락·김승재, 2025: 149-151). LDA는 Blei, Ng, & Jordan(2003)이 제안한 확률적 생성 모형으로, 각 문서는 여러 잠재 토픽이 일정 비율로 혼합된 결과이며 각 토픽은 특정 단어들의 확률 분포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확률 구조를 역으로 추정함으로써, 범주를 사전에 설정하지 않고도 말뭉치에 내재된 담론 구조를 자료 기반으로 귀납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론 구조 분석에 적합하다.

LDA 분석에 앞서 단어 빈도(TF) 분석과 단어 빈도-역문서 빈도(TF-IDF) 분석을 실시하여 말뭉치의 핵심 어휘 구조와 단어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TF-IDF 값은 분석 대상 기사문 1221건 각각에서 산출한 값을 합산한 것으로, 소수의 문서군에 집중적으로 출현하는 어휘일수록 높은 값을 갖는다.

모든 분석은 Python 환경에서 수행되었으며, 토픽 모델링에는 Gensim 라이브러리를, 빈도 분석과 시각화에는 scikit-learn과 관련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다. 문서-단어 행렬을 구성할 때에는 5건 미만의 기사문에 출현하는 희귀어와 전체 기사문의 80% 이상에 출현하는 범용 어휘를 제외하였다.

모형 학습에는 대규모 문서 집합의 LDA 추정에 널리 쓰이는 온라인 변분 베이즈(Online Variational Bayes) 추론 방식(Hoffman, Bach, & Blei, 2010)을 적용하였다. 수렴 안정성을 위해 말뭉치 학습 횟수(passes)는 20회, 문서별 최대 반복 횟수(iterations)는 1000회로 설정하였으며, 재현 가능성을 위해 난수 시드(random_state)를 고정하였다. 문서-토픽 분포의 사전 모수(α)와 토픽-단어 분포의 사전 모수(η)는 Gensim의 자동 최적화 설정을 적용하여 데이터로부터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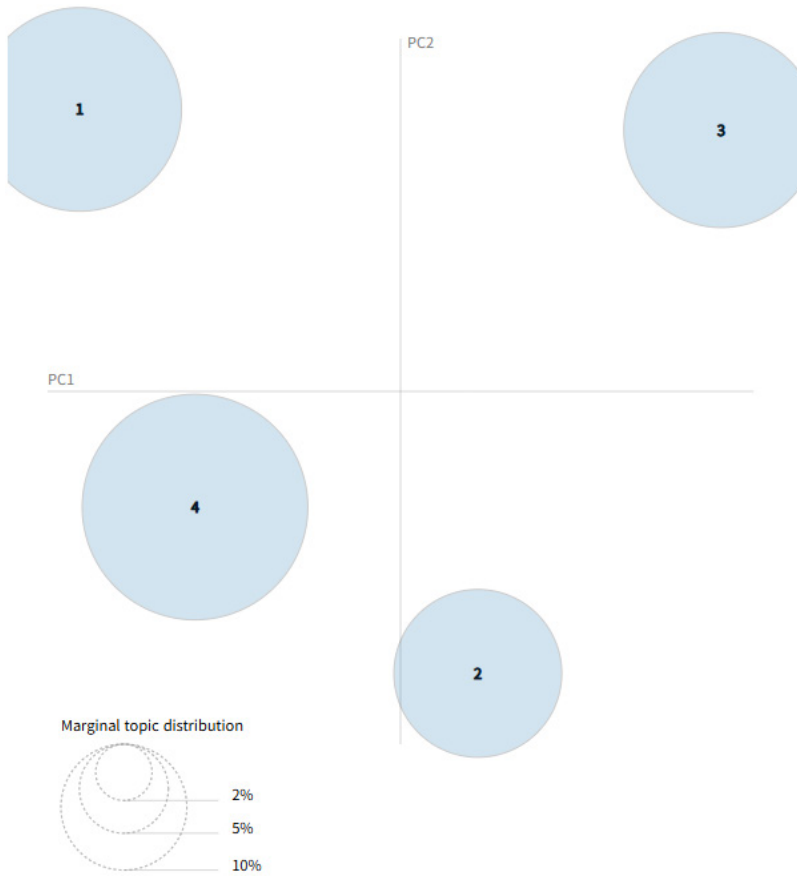
최적 토픽 수(k)를 결정하기 위해 k=2에서 k=15까지 각 k값에서의 토픽 일관성(Coherence Score)을 <그림 1>과 같이 산출하였다.



<그림 1> 토픽 수(k)에 따른 일관성 변화

일관성은 각 토픽의 상위 단어들이 의미적으로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갖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인간의 해석 가능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검증된 CV 일관성(c_v coherence)을 활용하였다(Röder, Both, & Hinneburg, 2015). <그림 1>에서 확인되듯 일관성 값은 k=4에서 가장 높았다. k=5 이후로는 값이 하락하였고 일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k=4의 값을 넘어서는 지점은 없었다.

또한 일관성 값은 토픽 내부 단어들의 의미적 응집도를 보여 줄 뿐, 토픽 사이의 변별 정도까지 담보하지는 않기에 본 연구는 pyLDAvis의 토픽 간 거리 지도(Intertopic Distance Map, IDM)를 산출하여(Sievert & Shirley, 2014) 토픽 간 의미 영역의 분리도를 함께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았다. 네 개의 토픽이 각 사분면에 중첩 없이 분산되어 있어, 토픽들이 서로 구별되는 의미 영역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리도와 함께 일관성 값, 토픽 해석의 간명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k=4를 최종 토픽 수로 결정하였다.



〈그림 2〉 토픽 간 거리 지도(IDM)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빈도 분석 결과

LDA 토픽 모델링에 앞서 말뭉치의 전반적 어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단어 빈도(TF) 분석과 단어 빈도 - 역문서 빈도(TF-IDF)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체 기사문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20개 단어는 <표 1>과 같다.

<표 1> 단어 빈도(TF) 상위 20개

순위	단어	TF	순위	단어	TF
1	작가	2357	11	사람	1057
2	문화	1867	12	텍스트	1055
3	도서관	1651	13	소설	995
4	공간	1385	14	프로그램	961
5	서점	1351	15	경험	888
6	한강	1253	16	출판	881
7	콘텐츠	1218	17	트렌드	817
8	도서	1205	18	대표	811
9	생각	1135	19	활동	797
10	문학	1072	20	참여	792

단어 빈도 분석 결과, ‘작가’(1위)를 비롯하여 ‘한강’(6위), ‘문학’(10위), ‘소설’(13위)이 상위권에 분포하였다. 이는 문학 작가와 작품에 대한 관심이 독서 유행 담론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함을 보여 준다. ‘도서관’(3위), ‘공간’(4위), ‘서점’(5위)이 함께 상위권에 오른 점은 독서가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문화’(2위)가 최상위권에 오른 점은 그 실천이 문화적 성격을 띠고 담론화되고 있음을 각각 시사한다. 이 밖에 ‘콘텐츠’(7위), ‘생각’(9위), ‘사람’(11위), ‘텍스트’(12위), ‘프로그램’(14위), ‘경험’(15위) 등이 상위 20위 안에 포함되었다.

TF-IDF는 단어가 특정 문서에서 갖는 변별적 중요도를 산출하는 지표이다(조규락·김승재, 2025: 113). 말뭉치 전체에서 빈도가 높은 편이더라도 개별 문서에서 변별성이 낮은 단어는 가중치가 낮아지며, 역으로 특정 문

서군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높은 가중치를 얻는다. TF-IDF 상위 20개 단어는 <표 2>와 같다.

〈표 2〉 단어 빈도-역문서 빈도(TF-IDF) 상위 20개

순위	단어	TF-IDF	순위	단어	TF-IDF
1	작가	44.37	11	소설	24.78
2	도서관	42.20	12	프로그램	23.17
3	한강	34.11	13	출판	21.71
4	서점	33.06	14	필사	21.09
5	문화	32.49	15	트렌드	20.96
6	공간	28.85	16	AI	20.90
7	문학	28.01	17	밀리의서재	20.88
8	도서	27.51	18	사람	20.72
9	콘텐츠	26.59	19	생각	20.51
10	텍스트	26.04	20	출판사	19.78

‘작가’와 ‘도서관’이 최상위에 오른 점은 단어 빈도 분석과 유사하나, 단어 빈도에서 상위권이던 ‘문화’, ‘사람’, ‘생각’ 등 범용 어휘는 순위가 다소 하락한 반면, ‘필사’(14위), ‘AI’(16위), ‘밀리의서재’(17위), ‘출판사’(20위) 등 특정 문서군을 대표하는 고유 어휘들이 보다 두드러졌다. 특히 ‘필사’의 높은 가중치는 아날로그적 텍스트 실천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하나의 문화적 코드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밀리의서재’의 경우에는 디지털 독서 플랫폼이 독서 유행 담론에서 한 부분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상의 고빈도 어휘들이 어떠한 잠재 토픽으로 구조화되는지는 다음 절에서 논하고자 한다.

2. LDA 기반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Ⅲ장에서 기술한 절차에 따라 최종 토픽 수를 네 개로 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토픽의 분류와 명칭을 정할 때에 상위 키워드를 일차적 준거로 삼되, 각 토픽에서 확률적 비중이 높은 기사문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병행하였다. 이는 키워드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담론의 맥락과 방향성을 실제 보도 내용을 통해 검증하여 토픽 명칭 부여와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을 거쳐 도출한 분류와 명칭은 국어교육 전문가 3인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였다.³⁾ 각 기사문은 토픽 확률 분포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갖는 토픽에 할당하였으며, 아래의 분포 비율은 전체 1221건 가운데 각 토픽에 할당된 기사문의 비율이다. 네 토픽의 명칭, 상위 키워드, 분포 비율은 <표 3>과 같으며, 토픽별 상위 키워드의 분포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표 3> LDA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요약

토픽	토픽명	상위 키워드 10개	분포 비율(%)
1	독서 공간과 체험 담론	도서관, 문화, 공간, 프로그램, 참여, 체험, 가을, 행사, 공연, 활동	29.9
2	디지털 독서 문화 담론	콘텐츠, 플랫폼, 트렌드, 서비스, 상품, 밀리의서재, 브랜드, 구독, 소비, 전자책	18.2
3	문학 향유 담론	작가, 한강, 출판사, 문학, 출판, 도서, 시집, 소설, 시인, 수상	22.4
4	사회적 독서와 공동체 담론	사람, 모임, 생각, 사람들, 자신, 활동, 서점, 마음, 시대, 경험	29.5

3) 토픽 분류 및 명칭 확정 협의에 참여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	교육 경력	전공	학위
A	10년	국어교육	박사 과정
B	17년	국어교육	박사 과정
C	14년	국어교육	박사

이 토픽에서 독서는 단순한 정보 습득 행위를 넘어 특정 장소에서의 문화적 경험과 결부되어 다루어진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독서가 무엇을 읽었는가에 못지않게 어디에서 어떻게 경험되었는가를 통해 의미를 획득하는 행위로 담론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점은 Oldenburg(1989/2019)의 제3의 장소 개념과 연관지어 해석될 수 있다. 그는 가정(제1의 장소)과 직장(제2의 장소) 외에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 교류하는 제3의 장소가 삶에 필수적이라고 보았으며, 카페와 서점 등을 그 전형적 사례로 들었다. 독서 공간이 이러한 제3의 장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독서 행위 자체가 여가와 일상 속 문화 실천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토픽이 가시화하는 독서 공간에 대한 의미 부여는 II장에서 검토한 독서 동기의 사회·문화적 성격과 조응한다. 독서 공간은 일차적으로 독서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독서 동기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도서관’과 더불어 ‘문화’, ‘참여’, ‘체험’, ‘활동’과 같은 키워드가 상위에 분포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독서 관련 문화적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독서 동기를 자극하기도 한다. 김해인 외(2023: 137-138)의 논의는 이를 뒷받침한다. 해당 연구는 비독자가 애독자로 전환되는 주요 계기의 하나로 접근성 있는 물리적 독서 환경을 제시하고, 책과 관련된 공간이 가까이 있을수록 독서 실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이때 전환의 계기로 보고된 공간에는 책과 문화 콘텐츠를 함께 체험하는 복합 문화 공간과 북카페도 포함된다. 요컨대, 독서 공간이 책에 접근하는 장소를 넘어, 책과 관련된 전시와 공연, 프로그램 등 독서와 관련된 제반 활동까지 포괄하는 문화적·체험적 공간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독서 동기를 자극하고 애독자로의 전환을 매개하는 조건으로 기능할 수 있다.

2) 토픽 2: 디지털 독서 문화 담론

토픽 2는 ‘디지털 독서 문화 담론’으로, 상위 키워드로 ‘콘텐츠, 플랫폼,

트렌드, 서비스, 상품, 밀리의서재, 브랜드, 구독, 소비, 전자책' 등이 도출되었다. 이 토픽은 독서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과 결합하여 하나의 콘텐츠로 다루어지는 양상을 포착한다. '플랫폼', '서비스', '구독', '전자책'과 같은 키워드가 상위에 분포한다는 점은, 밀리의서재로 대표되는 구독형 전자책 플랫폼의 부상과 더불어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 한 독서 활동, 디지털 콘텐츠로서의 독서 감상이 이 토픽을 이루는 주된 요소임을 보여 준다.

이 토픽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독서의 실천 방식이 재구성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디지털 환경과 함께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Prensky, 2001)들에게 독서는 종이책이라는 단일 매체에 고정되지 않고, 전자책·오디오북·SNS 콘텐츠 등 다양한 디지털 형식을 넘나드는 행위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에게 독서는 문화적 가치를 표출하는 자기표현의 한 형태이며, SNS에서 독서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은 독서를 사회적 자원으로 전환하는 행위가 된다(주민재, 2025: 144-145). 독서 경험을 사진과 영상으로 공유하는 북스타그램 계정에 독서 인증 해시태그와 함께 소설의 한 대목을 필사한 구절, 독서를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서점의 풍경이 올라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김예슬·박상연·김기중, 2024. 10. 15.).

디지털 매체를 매개로 한 독서의 부상은 애독자 전환의 새로운 계기를 더한다. 구독형 서비스와 전자책이 상위 키워드로 나타나는 것은 독서에 드는 비용과 접근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나아가 디지털 매체가 독서 경험을 외현화하고 공유하는 통로로 기능한다는 점은 자기표현이 독서 동기의 한 축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ezuanni, Reddan, Rutherford, et al.(2022: 355, 370)이 디지털 미디어를 독서의 대립항에 놓는 관점을 경계하면서, 디지털 플랫폼이 독서에 자신감이 없거나 독서를 시작한 이들을 독자로 불러내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이는 읽기 동기를 독자를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요인과의 교섭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던 이용준(2020)의 논의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늘날 디지털 환경은 독자의 교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에

해당하며, 이 토픽은 디지털 미디어를 독서의 방해 요인으로만 규정해 온 기존의 시각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3) 토픽 3: 문학 향유 담론

토픽 3은 ‘문학 향유 담론’으로, 상위 키워드로 ‘작가, 한강, 출판사, 문학, 출판, 도서, 시집, 소설, 시인, 수상’ 등이 도출되었다. 이 토픽은 문학 작가와 작품을 매개로 애독자가 형성되고 독서 동기가 촉발되는 흐름을 가시화한다. 작가와 출판 주체를 중심으로 문학 독서 담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그 계기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시집과 소설의 독자층 확대와 출판사·서점의 기획이 어우러져 문학 독서의 사회적 흥미를 견인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도서 판매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2025년 국내 한 온라인 서점의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 7권 중 4권이 문학 도서로 집계되었는데(채널에스, 2025. 12. 4.), 나머지 도서가 유명 정치인이나 시사 평론가의 저서인 점을 함께 고려하면, 독서의 장에서 문학 향유 경향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층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이 토픽에서 주목되는 점은 문학 향유가 ‘작가’, ‘문학’, ‘시집’, ‘소설’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동시대 독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사회적 관심사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한 소설가의 사인회 행사장, 문학 도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스에 독자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백재연, 2025. 6. 19.), 난해하다고 알려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이 젊은 독자층의 가세로 판매 호조를 보이자 한 출판사는 독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북토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이혜진, 2025. 10. 14.).

정보 검색과 요약이 자동화되는 환경에서도 문학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유의미하다. 문학은 독자에게 자신의 삶과 감정을 성찰하고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는 경험을 제공하는데, 이는 기계적 요약만으로는 대체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순영(2006: 359-361)은 독서 동기와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텍스트 요인으로 흥미로운 인물과 독자의 삶과 연관되는 주제

등을 지목한 바 있는데, 문학 텍스트는 이러한 요인들을 두루 갖춘 텍스트라는 점에서 이 토픽의 양상과 맞물려 이해할 수 있다.

4) 토픽 4: 사회적 독서와 공동체 담론

토픽 4는 ‘사회적 독서와 공동체 담론’으로, ‘사람, 모임, 생각, 사람들, 자신, 활동, 서점, 마음, 시대, 경험’ 등이 상위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 토픽은 독서를 모임과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적 실천으로 구성하는 담론을 포착한다. 독서 모임, 낭독회, 독서 동아리 등 독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 활동이 담론의 핵심 구성 요소로 등장하며, 독서를 통해 생각을 나누고 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이 부각된다. 또한 ‘마음’, ‘경험’, ‘활동’이 분포한다는 점은 독서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다음의 사례들은 사회적 독서가 확산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SNS를 통해 모인 독자들이 감상을 적어 둔 책을 서로 돌려 읽는 교환 독서 문화가 퍼지고 있으며, 카페에서 파티 형태의 독서 모임이 개최되기도 한다. 한 온라인 서점에서 이용자들이 만든 북클럽이 서비스 개시 1년 만에 2000개를 넘어섰다(장병호, 2025. 9. 16.). 퇴근 후 영상을 보던 직장인이 독서 습관을 들이기 위해 독서 소모임에 가입하는 사례가 나타났고, 한 독서모임 커뮤니티가 개설한 독서 모임이 빠른 속도로 마감될 정도로 독서 모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장유하, 2024. 10. 15.). 독서를 매개로 한 만남이 개인의 독서 실천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상위 10개 키워드의 바로 다음 순위 구간(11~15위) 키워드에 ‘이야기’, ‘대화’가 등장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독서 공동체가 책을 함께 읽는 행위와 함께 그것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대화와 이야기를 중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독서 모임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텍스트에 대한 해석을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을 연결하는 과정으로, 독서가 개인의 내면에 머물지 않고 관계 속에서 의미를 얻는 사회적 행위임을 보여 준다. 앞서 살펴본 교환 독서 문화

에서 책에 적어 둔 감상이 다른 독자에게 공유되는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스마트폰’, ‘영상’ 등 디지털 관련 어휘가 동시에 나타난 것은 이러한 대화와 이야기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토픽에서 확인되는 사회적 독서의 양상은 Schwanenflugel & Knapp(2015/2021: 418-422)이 독서에 부여하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제시한 관계적 가치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사람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활동에 참여하려는 동기인 관계적 가치는 독서를 지속시키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한다. 일례로 김지연·서수현(2020: 382-383)은 독서 모임 참여자들이 독서를 지식과 교양을 얻는 수단만이 아니라 타인과 생각을 나누는 소통의 매개로도 인식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 참여자는 책을 읽는 일 자체도 즐겁지만 작품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한 큰 즐거움이라고 진술하였다. 독서 태도가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이순영, 2006: 363), 본 토픽은 비독자의 독서 동기 향상에 특히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질 것이다.

3. 독서교육에 대한 시사점

독서 유행 담론은 사회·문화적으로 독서교육에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MZ 세대의 언어를 매개로 표면화되었으나, 그 기저에는 현시대의 독서 행위를 지탱하는 사회·문화적 조건이 내재되어 있다. 독서 동기가 개인의 내면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조건의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이순영, 2006; 이용준, 2020; 최건아 외, 2023), 평생 독자 형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 독서교육의 목표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또래와 대중문화 등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시기이자(최건아 외, 2023), 다수의 전환형 비독자가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여(이순영, 2019: 377-378), 이 시기의

독서교육이 지니는 중요성은 더욱 각별하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재편되고 있는 독서의 흐름을 독서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반영한다면, 학생 독자의 독서 동기를 증진하고 이들을 평생 독자로 이끄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토픽별로 독서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독서 공간을 접근이 용이하면서도 독서와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토픽 1에서 독서 공간은 책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전시·공연·체험형 프로그램과 같은 문화적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독서 동기를 자극하는 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도서관을 책을 즐기며 머무는 문화 공간으로 재설계하거나, 지역의 도서관·서점과 연계한 체험형 독서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결합한다면, 학생 독자가 독서를 해야 할 학습 과제가 아니라 해보고 싶은 흥미로운 하나의 문화로 경험하도록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안팎의 독서 공간을 그러한 경험이 일어나는 곳으로 구성하는 일은 책과 멀어진 학생 독자를 애독자로 유인하는 실제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디지털 매체를 독서를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독서교육의 자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토픽 2에서 디지털 매체는 구독형 서비스와 전자책, 콘텐츠를 통해 독서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독서 경험을 표현하고 나누는 통로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독자에게 친숙한 디지털 매체 플랫폼 및 콘텐츠를 활용하여 자신의 독서 경험을 표현하고 또래와 공유하도록 이끈다면, 디지털 환경에서 형성된 독서 유행 담론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고 학생 독자의 자발적 관심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매체를 독서와 대립하는 것으로 두기보다 능동적 독서로 이르는 길로 활용하는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셋째, 문학을 향한 사회·문화적 관심을 학생 독자 개개인의 생활 속 향유로 이어 갈 필요가 있다. 토픽 3의 담론 구조는 이순영(2006: 359-361)이 독서 동기와 몰입의 영향 요인으로 제시한 텍스트 요인, 곧 흥미로운 인물이

나 삶과의 관련성 등이 문학 작품을 통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역시 문학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성장해 가는 것을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문학교육이 형식적인 작품의 분석과 평가에 치중하기보다 학생 독자가 자신의 삶과 연결지어 작품을 음미하는 경험을 갖도록 설계된다면, 사회적으로 높아진 문학에 대한 관심이 독자 개인의 문학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인화(2025: 321)가 텍스트 읽을 문학교육이 지향하는 ‘문학의 생활화’, 곧 일상의 삶을 문학과 함께 영위하는 일이 자발적으로 발현된 양상으로 파악한 것도 이러한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넷째, 독서 공동체와 독서의 사회적 실천을 독서교육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토픽 4에서 확인되는 독서 모임 및 동아리는 애독자의 형성과 소통 역량의 증진이라는 두 층위의 교육적 효과를 지닌다. 정지영(2025)은 자발적으로 책을 읽지 않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북클럽을 운영하며 그 참여 양상을 분석하였다. 북클럽은 매주 함께 책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생각을 나누는 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가나 과제 없이 낮은 심리적 부담 속에서 운영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독서 실천의 성공 경험을 하였고, 이는 자기효능감 회복으로 이어졌다. 이는 관계적 독서 실천이 독서에 부정적 태도를 지닌 학생들에게도 자기결정적으로 독서를 실천하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나아가 독서 공동체는 소통 역량을 기르는 장이 되기도 한다. 김재인(2026: 177-180, 197)은 독해력이 지식과 정보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한다면 소통력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든다고 보고, 함께 읽고 말하고 듣고 쓰는 독서 모임을 언어력을 기르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이때 주목할 것은 토픽 4에서 ‘이야기’와 ‘대화’가 함께 포착되었듯이, 독서 공동체 활동의 교육적 효과는 책을 함께 읽는 경험과 그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대화가 결합될 때 비로소 발현된다는 점이다. 이는 정해진 수업 시간 안에 결과를 일회적으로 공유하는 발표 및 모둠 활동과 달리, 이를 매개로 또래 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의미가 구성

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변별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생성형 AI와 디지털 미디어가 일상화된 시대에 독서가 하나의 유행으로 부상하는 담론에 주목하여, 그 담론에 나타난 독서 행위의 특성을 규명하고 독서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텍스트heap, 북독, 힙독 등 독서 유행 현상을 매개하는 표현들을 검색어로 삼아 빅카인즈에서 수집한 기사문 1221건에 LDA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여 잠재 토픽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네 개의 토픽이 확인되었다. 독서 공간과 체험담론은 도서관과 서점이 문화와 체험의 장으로 재구성되는 양상을, 디지털 독서 문화 담론은 독서가 디지털 매체와 결합하여 하나의 콘텐츠로 다루어지는 양상을 담아낸다. 문학 향유 담론은 작가와 작품을 중심으로 문학 독서를 향한 사회적 관심이 형성되는 흐름을, 사회적 독서와 공동체 담론은 독서 모임과 낭독회 등 함께 읽고 소통하는 활동을 매개로 독서가 관계 속에서 의미를 얻는 사회적 실천으로 다루어지는 양상을 포착한다.

이상의 네 토픽은 독서율의 지속적 하락이라는 거시적 추세 속에서도 독서를 자발적으로 찾는 흐름이 여러 층위에서 동시에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각 토픽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독서 동기를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서로 다른 면모를 드러낸다. 독서 동기가 개별 독자의 내면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극하고 뒷받침하는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마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독서 유행 담론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독서 행위의 특성은 독서교육이 독서 행위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학생 독자의 독서 동기를 향상시키고 평생 독자로 성장시키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

이상의 논의에 더해 본 연구는 독서 동기 증진을 위한 독서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안팎의 독서 공간을 문화와 체험이 어우러지는 성격의 공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체험형 독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생 독자가 독서를 일상의 문화로 겪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 독자에게 익숙한 디지털 매체를 독서를 가로막는 요인이 아니라 독서 경험의 표현과 공유를 돕는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 독자가 문학 작품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하도록 하는 독서교육을 통해 문학을 향한 사회적 관심을 개개인의 향유로 이어 갈 필요가 있다. 넷째, 학생 독자의 독서 공동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여 비독자의 독서 진입을 돕는 한편, 독서 이후의 대화를 통해 학습자가 소통과 공감의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정량적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담론 분석을 수행한 만큼, 개별 기사문이 독서 유행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미시 분석과 실제 독자의 경험에 대한 질적 탐구는 병행되지 못하였다. 향후 독자 대상 심층 면담 및 참여 관찰 등을 병행하여 본 연구의 논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정된 검색어 선정과 수집 기간의 설정이 담론의 범위를 일정 부분 제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독서 유행 담론의 시계열적 변화 분석, 네트워크 분석 등을 통해 본 연구의 논의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그간 추상적인 현상으로 다루어져 온 독서 유행 담론 구조를 대규모 기사문 자료에 근거하여 규명하고, 그 담론 구조를 네 층위로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국어교육과 독서교육 분야의 토픽 모델링 연구가 주로 연구 동향 분석이나 특정 주제에 집중되어 온 것과 달리, 그 적용 범위를 사회·문화적 현상으로까지 확장하였다. 나아가 최근 독서 행위에서 확인된 사회적 변화의 양상을 독서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반영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독서가 위축되는 추세 속에서도 독서를 향한 사회적 관심이 새롭게 형

성되고 있다는 점은 독서교육이 학생 독자의 독서 동기를 함양할 새로운 토대가 마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독서교육의 목표가 일정 수준의 독서 능력 신장을 넘어 평생 독자를 기르는 데에 있으며 그 관심이 학령기 이후로도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정옥년, 2017: 39-40), 독서 유행 현상이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조건은 평생 독자 형성을 위한 독서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준다. 본 연구의 결과가 그 가능성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잇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26.07.31. 투고되었으며, 2026.08.14. 심사가 시작되어 2026.09.09.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교육부(2022),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5)』, 세종: 교육부.
- 구은서(2025. 10. 28.), 도서관은 책 사주는 기관? 독자를 생산하는 공간!, 한국경제, 검색일자 2026. 9. 10., 사이트 주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0286726i>.
- 김예슬·박상연·김기중(2024. 10. 15.), #독봄은 #한강 작품 도장깨기. 독서 열풍에 빠진 대한민국, 서울신문, 검색일자 2026. 9. 10., 사이트 주소 <https://www.seoul.co.kr/news/life/publication-literature/2024/10/15/20241015008003>.
- 김재인(2026), 『디스킬 제너레이션: AI 시대, 생존을 위한 언어력 수업』, 서울: 오리지널스.
- 김지연·서수현(2020), 「온라인-오프라인 공간을 매개로 한 성인 독서의 실천적 진화」, 『교육논총』(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40(4), 371-392.
- 김해인(2020), 「성인 비독자의 형성 원인과 과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해인(2024), 「청소년 애독자의 독서 실태와 주요 독서 환경 분석」, 『독서연구』 73, 329-367.
- 김해인·이수진·이순영(2023), 「성인 전환형 애독자의 유형과 특성 분석」, 『한국어문교육』 43, 115-150.
- 나건웅·조동현·정혜승·정수민(2025. 2. 11.), 온라인 세계에 번지는 텍스트힘, 매경이코노미, 검색일자 2026. 5. 20., 사이트 주소 <https://www.mk.co.kr/news/economy/11237827>.
- 문화체육관광부(2026), 『2025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고운·최숙기(2025), 「팬데믹 이후 문해력 담론의 변화와 교육 정책적 함의: 토픽 모델링과 시계열 분석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75, 175-221.
- 박신애(2022), 「청소년 비독자의 유형별 특성 및 형성·심화 과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윤경(2025),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한 문해력에 대한 담론 연구: 뉴스 데이터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28(1), 107-138.
- 백재연(2025. 6. 19.), “독서 봄은 온다”... 서울국제도서전, MZ ‘핫플’ 되다, 국민일보, 검색일자 2026. 9. 10., 사이트 주소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275756>.
- 이순영(2006), 「독서 동기와 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독서연구』 16, 357-379.
- 이순영(2019), 「독자와 비독자 이해하기: 용어, 현황, 특성, 생성·전환을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10(6), 357-384.
- 이용준(2020), 「사회문화적 관점과 읽기 동기에 관한 시론」, 『독서연구』 57, 107-144.
- 이인화(2025), 「텍스트힘의 복합성에 대한 이해와 문학교육적 함의」, 『문학교육학』 88, 301-332.
- 이혜진(2025. 10. 14.), “난해해서 험하다”... 노벨문학상에 꽃힌 2030, 서울경제, 검색일자

2026. 9. 10., 사이트 주소 <https://www.sedaily.com/NewsView/2GZ6C9UG4G>.
- 장병호(2025. 9. 16.), 파티처럼 함께 읽고, 같은 책 나눠 읽고... MZ '텍스트 힙' 열풍, 이데일리, 검색일자 2026. 9. 10., 사이트 주소 <https://www.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1695766642300776>.
- 장수정(2025. 12. 26.), 서울국제도서전 흥행—젊은 독자·출판인 활약, '텍스트힙'이 이끈 변화, 데일리안, 검색일자 2026. 5. 20., 사이트 주소 <https://www.dailian.co.kr/news/view/1590924>.
- 장유하(2024. 10. 15.), "책사러 왔어요" 서점가 '한강 열풍'... 독서모임 가입도 늘어 ['텍스트 힙'의 시대], 파이낸셜뉴스, 검색일자 2026. 9. 10., 사이트 주소 <https://www.fnnews.com/news/202410151833505455>.
- 정옥년(2017), 「평생 독자의 성장과 교육적 지원」, 『독서연구』 43, 35-66.
- 정지영(2025), 「비애독자 중학생들의 온라인 북클럽 참여 요인 탐구: 독서 경험 및 환경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규락·김승재(2025), 『사례로 배우는 텍스트 마이닝』, 서울: 학지사.
- 주민재(2025), 「텍스트힙 현상 분석을 통한 모바일 네이티브의 콘텐츠 소비 양상 탐구」, 『한국 문예비평연구』 85, 139-172.
- 채널예스(2025. 12. 4.), 2025년 베스트셀러 동향과 출판계 트렌드는?, 예스24 채널예스, 검색일자 2026. 5. 20., 사이트 주소 <https://ch.yes24.com/article/details/81752>.
- 최건아·김라연·박소희(2023), 「중학생의 읽기 동기 영향 요인에 대한 질적 탐구」, 『국어교육』 182, 135-172.
- 최한중(2026. 4. 16.), 책과 사람, 동네를 잇다... 독립서점이 만든 작은 기적, 한국경제, 검색일자 2026. 9. 10., 사이트 주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1662021>.
-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1022.
- Dezuanni, M., Reddan, B., Rutherford, L., & Schoonens, A. (2022), "Selfies and shelfies on #bookstagram and #booktok: Social media and the mediation of Australian teen reading", *Learning, Media and Technology* 47(3), 355-372.
- Dezuanni, M. & Schoonens, A. (2024), "#BookTok's peer pedagogies: Invitations to learn about books and reading on TikTok", *Social Media + Society* 10(4), 20563051241309499.
- Engemann, C. (2025), 『읽기의 위기』, 김인건(역), 서울: 헤이복스, 2026.
- Hoffman, M., Bach, F., & Blei, D. (2010), "Online learning for latent Dirichlet allocation",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23, 856-864.
- Martens, M., Balling, G., & Higgason, K. A. (2022), "#BookTokMadeMeReadIt: Young adult reading communities across an international, sociotechnical landscape", *Information and Learning Sciences* 123(11/12), 705-722.
- Mikulecky, L. (1978), "Aliteracy and a changing view of reading goals", Paper presented

-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Houston, TX. (ERIC No. ED 157 052).
- Oldenburg, R. (1989), 『제3의 장소』, 김보영(역), 서울: 풀빛, 2019.
- Prensky, M. (2001),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Part 1", *On the Horizon* 9(5), 1-6.
- Röder, M., Both, A., & Hinneburg, A. (2015), "Exploring the space of topic coherence measures", *Proceedings of the Eighth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eb Search and Data Mining*, 399-408.
- Schwanenflugel, P. J. & Knapp, N. F. (2015), 『독서 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위한 독서심리학』, 서혁 외(역), 서울: 사회평론이카데미, 2021.
- Sievert, C. & Shirley, K. (2014), "LDavis: A method for visualizing and interpreting topics", *Proceedings of the Workshop on Interactive Language Learning, Visualization, and Interfaces*, 63-70.
- Thomas, B. (2021), "The #bookstagram: Distributed reading in the social media age", *Language Sciences* 84, 101358.

독서 유행 담론에서 나타난 독서 행위의 특성과 교육적 함의 — LDA 토픽 모델링을 중심으로

황재호

본 연구는 AI·디지털 시대에 독서가 유행하는 현상이 언론에서 의미화되는 양상을 ‘독서 유행 담론’으로 명명하고, 그에 나타난 독서 행위의 특성과 교육적 함의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텍스트heap 등 독서 유행 담론을 매개하는 표현을 검색어로 삼아 수집한 기사문 중 전처리를 거쳐 선별한 1221건에 LDA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독서 공간과 체험 담론, 디지털 독서 문화 담론, 문학 향유 담론, 사회적 독서와 공동체 담론의 네 토픽이 확인되었다. 이에 기반하여 문화와 체험의 공간으로서의 독서 공간 조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독서 경험 표현 및 공유, 삶과 연결된 문학 향유 중심의 문학 독서교육, 독서 공동체를 통한 비독자 지원 및 의사소통 역량 함양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독서 유행 현상의 담론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학생 독자의 독서 동기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 자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핵심어 독서 유행 담론, LDA 토픽 모델링, 텍스트heap, 독서교육, 애독자, 독서 동기

Reading Practices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in Reading Trend Discourse

— Focusing on LDA Topic Modeling

Hwang Jaeho

This study uses the term reading trend discourse for the media representation of the emerging trend of reading in the AI and digital era, examining the manifested reading practices and their educational implications. LDA topic modeling was applied to 1,221 news articles selected, through preprocessing, from those retrieved using expressions that mediate this discourse, such as “text hip.” Four topics were identified: reading spaces and experiences, digital reading culture, literary enjoyment, and social reading and communit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shaping reading spaces as places of culture and experience, using digital media to express and share reading experiences, designing reading education centered on literary enjoyment connected to students’ lives, and supporting non-readers while fostering communication competence through reading communities. By clarifying this discourse structure, the study identifies practical resources for enhancing students’ reading motivation.

KEYWORDS Reading trend discourse, LDA topic modeling, Text Hip, Reading education, Engaged reader, Reading motivation